

SPORTS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파죽지세’ KIA, 원정서 상위권 진입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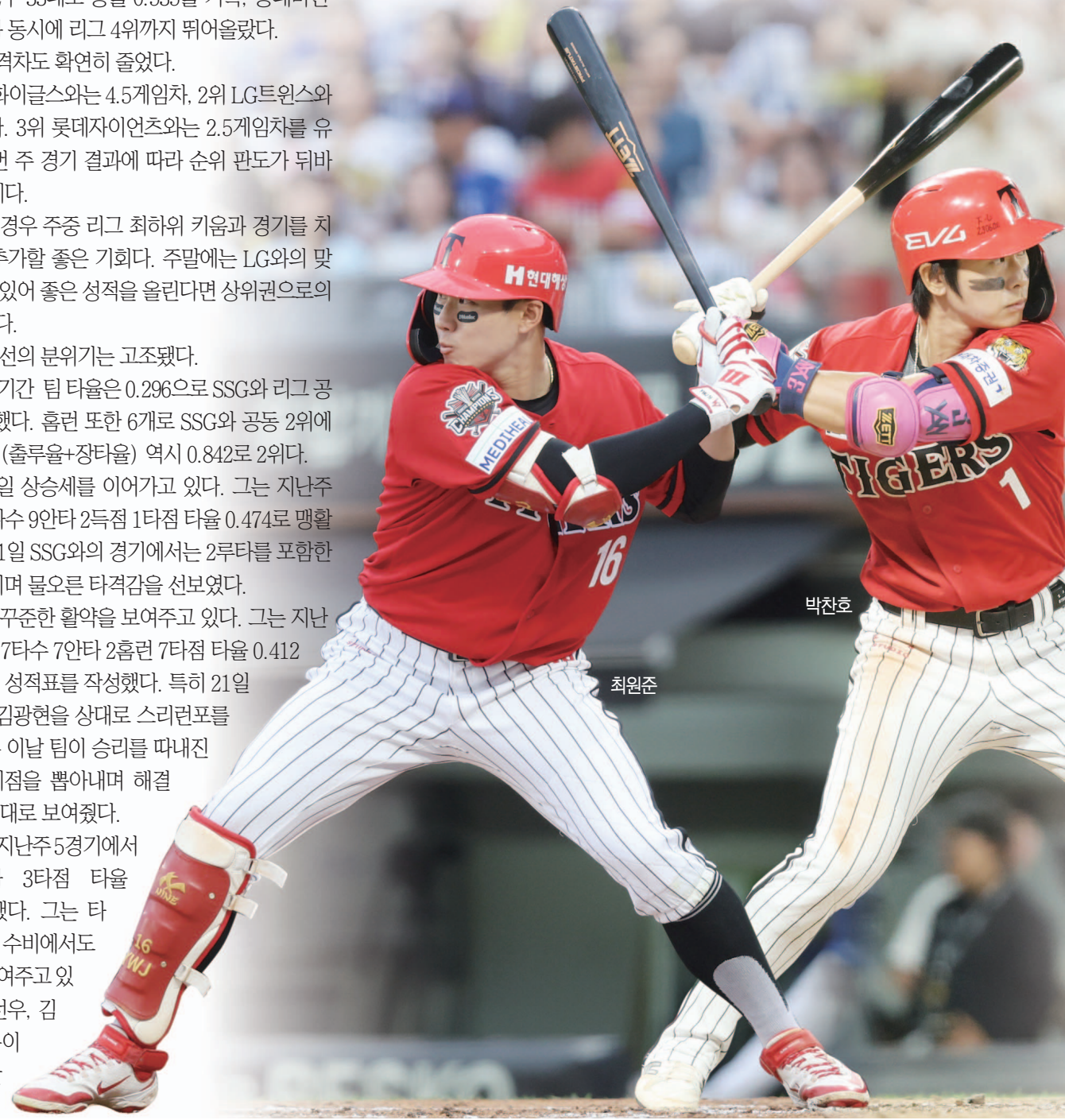
하찬석국수배 ‘마지막 출전’ 김은지
정준우 꺾고 우승…한중대항전 출격

김은지(18) 9단이 마지막으로 출전한 하찬석국수배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은지는 22일 오후 상동구 마정으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3기 하찬석국수배 영재최강전 결승 3번기 최종국에서 정준우(16) 3단에게 227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이로써 김은지는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하찬석국수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김은지는 오는 10월과 11월 열리는 ‘한·중 영재대항전’과 ‘정상 vs 영재 대결’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해 준우승에 머물렀던 김은지는 이번 대회 8강부터 윤서원·이민석 초단을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지난 19일 경남 합천에서 열린 결승 1국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지만 21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이어진 2국에서는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그러나 3국에서 다시 정준우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라 혼신 신에 대회에서 두 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또 김은지는 올해 2007년생 이하 선수에게 출전 자격을 부여한 하찬석국수배에 마지막으로 참가해 우승을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김은지는 대국 후 “2국에서 패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3국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즌이었지만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또래 강한 남자 선수들이 많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상대여도 내 실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영재대항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찬석국수배 영재최강전 우승 상금은 1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5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시간누적(피서) 방식으로 각각 20분에 추가시간 20초다. 연합뉴스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원정 6연전에서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주중 kt위즈에 스윙세를 달성한 뒤 주말 SSG를 상대로 1승 1무(1경기 우천취소)를 거뒀다. 그 결과 38승 2무 33패로 승률 0.535를 기록, 승패마진을 +5로 늘림과 동시에 리그 4위까지 뛰어올랐다. 선두권과의 격차도 확연히 줄었다. 리그 1위 한화이글스와의 4.5게임차, 2위 LG트윈스와의 3.5게임차다. 3위 롯데자이언츠와는 2.5게임차를 유지 중이다.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판도가 뒤바뀔 수 있는 수치다. 특히 KIA의 경우 주중 리그 최하위 키움과 경기를 치른다. 승수를 추가할 좋은 기회다. 주말에는 LG와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어 좋은 성적을 올리다면 상위권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현재 KIA 타선의 분위기는 고조됐다. 지난주 경기 기간 팀 타율은 0.296으로 SSG와 리그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홈런 또한 6개로 SSG와 공동 2위에 자리했다. OPS(출루율+장타율) 역시 0.842로 2위다. 최원준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주 5경기에서 19타수 9안타 2득점 1타점 타율 0.474로 맹활약했다. 지난 21일 SSG와의 경기에서는 2루타를 포함한 3안타를 몰아치며 몰오른 타격감을 선보였다. 최형우 역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지난주 5경기에서 17타수 7안타 2홈런 7타점 타율 0.412라는 믿기 힘든 성적표를 작성했다. 특히 21일 SSG전에서는 김광현을 상대로 스리런포를 터트렸다. 비록 이날 팀이 승리를 따내진 못했지만, 선제점을 뽑아내며 해결사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 또 박찬호는 지난주 5경기에서 23타수 8안타 3타점 타율 0.348을 기록했다. 그는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오선우, 김석환, 박민 등이 제 몫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24~26일 고척 키움전…27~29일 잠실 LG전
38승 2무 33패 리그 4위…투·타 분위기 고조



팀 타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마운드 역시 단단해졌다. 지난주 올리와 네일, 양현종은 선발 등판해 각각 6이닝 이상을 책임지며 패투를 펼쳤다. 특히 정상현은 4경기 등판해 1승 3홀드를 올리며 뒷문을 든든히 책임졌다. 지난달 20일 kt위즈전에서 1군 데뷔전을 치른 성영택은 최근 13경기에서 17.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데뷔전 이후 최대 연속 이닝 무실점 구단 기록을 갱신했다. KBO리그 역대 3위 기록이다. 그는 18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조용준을 넘어, 2021년 8월 29일 잠실 LG전부터 2024년 4월 26일 고척 삼성전까지 19.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역대 1위 김인범(키움) 기록을 넘본다. 루키 이호민은 지난 22일 SSG전에서 팀이 2-3으로 뒤진 7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올라와 0.2이닝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 결과 1군 데뷔 이후 세 경기 만에 첫 승리를 따냈다. 3경기 2.2이닝 무실점으로 연일 호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KIA는 주중 경기를 키움과 치르게 된다. 키움은 현재 21승 2무 53패 승률 0.284로 리그 최하위에 위치했다. 평균자책점도 10위(5.61)로 KIA(5위·4.15)를 한참 밑돌고 있다. 팀 타율 역시 0.231로 리그 최하위다. 다만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5승 1무 3패로 KIA가 키움을 압도하고 있던 못하다. 고척스카이돔에서 만난 키움은 김윤하를 24일 선발로 내보낸다. 이에 KIA는 윤영철을 선발로 투입한다. 키움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잠실에서 LG를 상대한다. KIA가 이번 주 경기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며 순위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신한 SolBank KBO리그 중간 순위 (23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입차			
1	한화	73	43	29	1	0.597	0			
2	LG	74	42	30	2	0.583	1			
3	롯데	75	41	31	3	0.569	2			
4	KIA	73	38	33	2	0.535	4.5			
5	삼성	74	38	35	1	0.521	5.5			
6	SSG	73	36	34	3	0.514	6			
7	KT	75	37	35	3	0.514	6			
8	NC	71	32	35	4	0.478	8.5			
9	두산	74	29	42	3	0.408	13.5			
10	키움	76	21	53	2	0.284	23			

전남 근대5종, 문체부장관기서 ‘금빛 질주’

금 4·동 2개…양우승, 대회 2관왕
전남 근대 5종이 전국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2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근대5종은 최근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먼저 전남도청팀이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선전했다. 양우승, 박상구, 이동기, 조예준으로 구성된 전남도청팀은 남자일반부 4종 단체전에서 총점 3441점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어 4종 릴레이 경기에서는 김영하, 서창완, 양우승이 나서 총점 1121점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양우승은 대회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끝나무 선수들도 메달 행진에 가세했다. 황재원(장성 사창초)은 여자 초동3~4학년부



전남 근대5종은 최근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근대2종 경기에서 총점 539점으로 개인전 1위를 차지했다. 전남체육중(김민재·서광진·김단오·양진석)도 남자중등부 근대2종 단체전에서 총점 2371점으로 1위에 올랐다. 또 김민재는 남중부 근대2종 개인전에서, 광동규·김강영·허민준(이상 전남체고)은 남고부 계주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남의 메달대열에 힘을 실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체고 배드민턴, 대통령기대회 금·동 획득

혼복 여서영 1위·여복 이나라-김나연 3위
광주체육고등학교 배드민턴부가 ‘2025 대통령기 전국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겸 제33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선수 선발전’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광주체고는 지난 14~21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과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출전해 고등부 혼합복식 금메달과 여자 개인복식 동메달을 따냈다. 광주체고 여서영(1년)은 전대상대부고 현수민(3년)과 짝을 이뤄 출전한 고등부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여서영-현수민 조는 2회전에서 이천구(이천체고)-김민서(포천고) 조를 2-0으로, 3회전에서 정영제(구미시체육회)-강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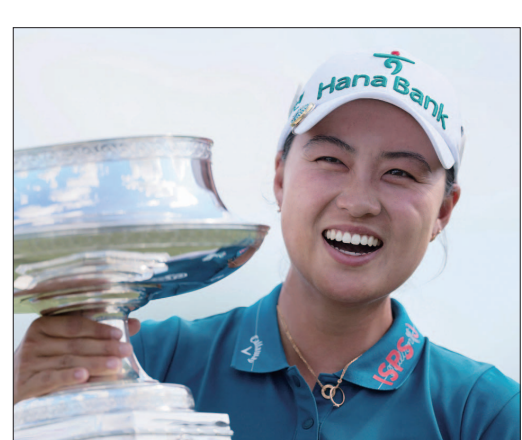


민(청송여고) 조를 2-1로, 8강전에서 박시연(군산동고)-문인서(전주성심여고) 조를 2-1로, 준결승서 김태현(정주고)-한승연(전주성심여고) 조를 2-0으로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강승연(구미시체육회)-곽민아(청송여고) 조를 만나 2-0(21-17, 21-18)으로 완파했다. 광주체고 이나라(3년)와 김나연(2년)은 여고부 개인복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나라-김나연 조는 8강전에서 오윤솔-조은채(이상 영덕고) 조를 모두 2-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는 문인서-한승연(이상 전주성심여고) 조에 1-2(15-21, 21-19, 18-21)로 패해 공동 3위에 만족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이민지, ‘빛자루 퍼터’로 메이저 3승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최혜진·이소미 8위

호주 교포 이민지(사진)가 20개월 동안 이어졌던 우승 감증을 메이저 대회에서 썼었다. 이민지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즈랜치 이스트 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12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오버파 74타를 치합게 4연더파 284타로 우승했다. 교포 오스틴 김(미국)과 잔네티 완나센(태국) 두 명을 3타 차로 따돌린 이민지는 2023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20개월 만에 LPGA 투어 대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메이저 대회 우승은 2021년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2022년 US여자오픈에 이어 세 번째다. 이제 8월 AIG 여자오픈 또는 내년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완성한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3승을 올린 호주 선수는 카리 웹, 쟈 스티븐슨에 이어 이민지가 세 번째다. 우승 상금 180만달러를 받은 이민지는 단숨에 상금랭킹 1위(261만124달러)로 올라섰다. 지난해 상금랭킹 43위로 2015년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이민지는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다시 최정상급 선수로 부활했다. 지난해 퍼팅 부진에 시달렸던 이민지는 특히 이번 시즌부터 들고나온 빛자루 형태의 브롬스틱 퍼터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라 주목받았다. 이민지는 중장거리 퍼트는 매우 잘하는 편이지만 2m 이내 짧은 퍼트를 자주 놓치는 약점을 보완하려고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브롬스틱 퍼터를 쓰고 있다. 지노 티파꾼(태국)에게 4타 앞선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민지는 강한 바람과 빠르게 단단한 그린 탓에 고전하며 6번 홀까지 3타를 잃었지만, 티파꾼도 타수를 잃어서 선두는 지켰다. 오히려 한참 뒤쳐져 있던 오스틴 김과 완나센이 타수를 줄이며 추격했다. 하지만 이민지는 14번(파5)과 15번 홀(파4) 연



속 버디로 4타 차까지 달아났다. 16번 홀(파4)에서 1타를 잃었지만, 마지막 2개 홀을 잘 치긴 이민지는 동료들의 삼페인 세례를 받았다. 이민지는 “14, 15번 홀이 버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전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플레이했다”며 “오늘 하루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일찍 브롬스틱 퍼터를 사용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지금 잘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오스틴 김과 완나센은 이날 나란히 4연더파 68타를 때리는 눈부신 경기를 펼쳤지만, 9타 치를 뒤집기에는 18홀로는 부족했다. 1연더파 71타를 친 이와이 치사토(일본)가 3타를 잃은 티파꾼과 함께 공동 4위(1오버파 289타)에 올랐다. 이민지, 티파꾼과 함께 챔피언즈에서 경기한 최혜진은 버디 2개와 보기 4개로 2오버파 74타를 쳐 공동 8위(3오버파 291타)를 차지했다. 최혜진은 세브론 챔피언십 공동 9위, US여자오픈 공동 4위에 이어 이번 시즌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은파 72타로 잘 버틴 이소미도 최혜진과 함께 공동 8위에 올라 마이아 클래식 3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톱10에 입성했다. 황유민은 공동 19위(6오버파 294타), 방신실은 공동 23위(7오버파 295타)의 성적을 남기고 귀국 길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배드민턴부가 ‘대통령기 전국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겸 제33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선수 선발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나연, 여서영, 이나라. 사진제공=광주체고